

‘빵과 장미’의 약속: 3·8 세계여성의날이 묻는 오늘의 과제

매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이다. 1908년, 미국 뉴욕에서 1만 5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인 ‘빵’과 인간다운 존엄을 뜻하는 ‘장미’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그날의 외침은 오늘날 전 세계 성평등 운동의 거대한 상징이자 출발점이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는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정치·경제·사회 전반에는 성별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이 남아 있다. 노동시장과 의사결정 구조, 일상 안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격차와 차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제도와 관행 속에 축적된 구조적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엔(UN)이 1975년 세계여성의날을 공식 기념일로 채택한 이후, 이 날은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 대표성 부족, 젠더 기반 폭력 등 지속되는 발생하는 과제를 점검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전 지구적 행동의 날(Day of Action)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에 본 브리프에서는 세계여성의날이 품은 저항과 연대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선언적 평등’을 넘어 시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평등’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세계여성의날, 그 시작과 역사적 의미

- 세계여성의날의 시작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여성 섬유노동자들의 집단 시위에서 비롯됨. 당시 1만 5천 명이 넘는 여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에 맞서 거리로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요구한 정치적 선언이었음

1) ‘빵과 장미’가 담고 있는 권리 요구의 의미



[그림 1] 1908년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 시위대¹⁾
자료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503081903491>)



[그림 2] 제임스 오펜하임의 시 「Bread and Roses」 (1911)
자료 : Oppenheim, J. (1911). Bread and Roses.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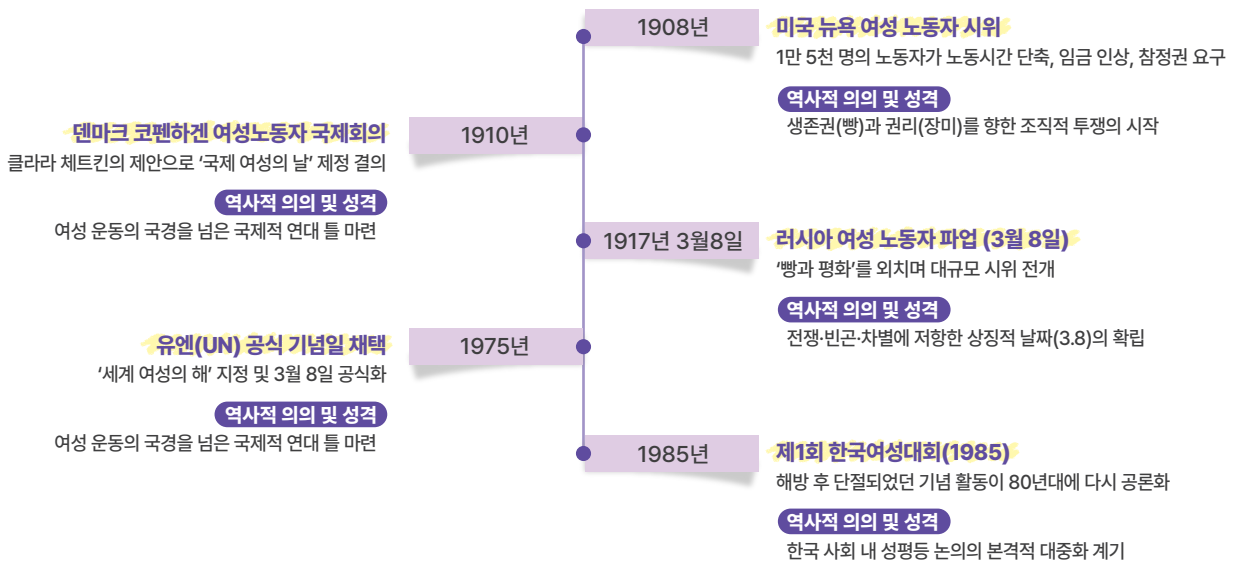
-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임금,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그들의 요구는 단지 ‘빵’, 즉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장미’의 요구도 함께 담겨 있었음. 이는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권 등 시민적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었음
- ‘빵’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상징하며,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겪었던 구조적 임금 차별의 현실을 반영함. 반면 ‘장미’는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뜻하는 표현으로, 문화·교육·정치 참여 등 여성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음

1) 정유진. (2015,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503081903491>

2) 국제적 연대 속에서 기념일로 자리 잡기까지의 흐름

-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곧 국경을 넘어 국제 여성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됨.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국제회의에는 17개국에서 온 약 100명의 여성들이 참석하여 여성의 노동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해 논의함. 이 자리에서 독일의 사회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인 클라라 체트킨은 매년 하루를 정해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국제적 기념일을 만들자고 제안함²⁾
- 이후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평화'를 외치며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가 일어난 날이 3월 8일이었음.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의 행동은 전쟁과 빈곤, 성차별이 겹친 상황에서 생존과 평화를 동시에 요구한 것임. 이 사건은 세계 여성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3월 8일이 세계여성의날로 점차 자리 잡게 됨
- 이후 세계여성의날은 여러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기념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은 것은 1975년 유엔의 결정 이후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같은 해 3월 8일을 세계여성의날로 공식 채택하였음. 이를 통해 세계여성의날은 전 세계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을 위한 국제적 약속의 날로 제도화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평등 논의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3.8 국제 부인데이(국제무산부인데이)'를 기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해방 이후 단절됨. 이후 1985년 3월 8일 제1회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면서 세계여성의날이 다시 공론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세계여성의날 기념과 성평등 논의가 본격화됨

[그림 3] 세계여성의날 기념일 제정 과정 및 주요 역사적 사건



2 세계여성의날의 현재적 의미와 구조적 과제

1) 상징색과 캠페인을 통해 본 성평등의 지향점

- 세계여성의날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보라색은 정의와 존엄을, 초록색은 희망을, 흰색은 순수를 상징함. 이 세 가지 색은 세계여성의날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색으로 사용되고 있음
- 특히 보라색이 상징하는 '정의'는 성별 임금격차와 같은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과제를 환기하며, 초록색이 상징하는 '희망'은 성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노력이 이어질 때 변화와 진보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 흰색이 상징하는 '순수'는 편견이나 왜곡 없이 성평등 현실을 직시하고, 성별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킴. 이는 매년 발표되는 세계여성의날 캠페인 주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성평등 실현의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할 수 있음

2) 클라라 체트킨의 제안은 여성의 권리 문제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구조적 과제를 분명히 한 것이었으며,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채택됨. 이를 계기로 '여성의 날'은 국제적 기념일로 제도화되는 출발점이 마련됨



[그림 4] 세계여성의날 상징 색

자료 : IWD 세계여성의날 홈페이지(<https://www.internationalwomensday.com>)

2) 기념을 넘어, 변화를 위한 약속

- 세계여성의날은 단순히 여성을 축하하는 기념일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에 남아 있는 성불평등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날임. 과거의 투쟁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지속되고 있는 성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공동의 책임을 환기하는 계기로 기능함
- 이는 성평등이 이미 완성된 가치가 아니라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하는 날임. 노동시장과 정치, 교육, 안전, 디지털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격차와 차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문제임을 상기시킴
- 이에 따라 유엔과 국제사회는 매년 세계여성의날 주제를 발표하여 주요 성평등 의제를 제시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 있음. 이는 세계여성의날이 기념을 넘어 정책적·사회적 행동을 촉구하는 국제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1> 연도별 세계여성의 날 캠페인 주제

연도	캠페인 주제
2025년	더 빠르게 행동하라 (Accelerate Action)
2024년	여성에 투자하세요: 진보를 가속화하라 (Invest in Women: Accelerate Progress)
2023년	DigitALL: 여성과 기술의 혁신 (DigitALL: Innovation and Technology with a Gender Perspective)
2022년	편견을 깨자 (Break the Bias)
2021년	여성의 리더십: 코로나19 시대에 평등한 미래를 위한 리더십 (Women's Leadership: Future for a Future)
2020년	평등을 위한 각자의 선택 (I am Equal: Equality Now)

자료 : UN Women 홈페이지(<https://www.unwomen.org>)

3) 오늘날 여성들이 마주한 구조적 과제

- 여전히 세계 여성들은 빈곤과 불평등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극심한 빈곤은 여성과 소녀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젠더 불평등과 구조적으로 결합된 문제임을 보여줌. 특히 30대 중반의 여성은 결혼·출산·돌봄이 집중되는 생애주기 와 노동시장 구조의 영향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등 빈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여성은 실업, 질병, 노령 등 소득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형식적으로는 성중립적으로 설계된 제도라도 여성의 경력 단절과 돌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취약성이 구조화됨
- 분쟁과 기후위기 역시 이러한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무력 충돌과 기후 재난은 기존의 젠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여성과 소녀는 생계 상실과 안전 위협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으며 이는 위기 상황이 성평등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내포함
- 동시에 젠더 기반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임. 가정, 공공장소, 일터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여성의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교육, 경제활동, 사회 참여 전반을 제약하며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현실은 성평등이 이미 완성된 가치가 아니라,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재진행형 과제를 보여줌. 이에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는 성평등 정책과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여성의날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시화하고 공동의 책임을 환기하는 계기로 기능함

3 '빵과 장미'의 약속: 실질적 평등을 위한 부산의 과제

1) '빵과 장미'의 현재적 의미

- '빵과 장미'의 정신은 20세기 초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존엄 요구에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특정 성별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성찰하게 하는 보편적 가치로 확장되고 있음. 이는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에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기본적인 인간다운 존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추는 관점임
- 오늘날 시민 중 일부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 안전망의 한계로 인해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 또 다른 이들은 장애, 이주 배경, 차별과 낙인 등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해되어야 함
- 이처럼 '빵과 장미'는 생존의 기반과 존엄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상징하며, 성평등의 가치를 넘어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의 토대 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확장됨. 이러한 가치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과 실천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2) 부산에서 실현하는 '빵과 장미'의 과제

- '빵과 장미'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는 선언이나 구호만으로 실현되기 어려우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을 통해 구현되어야 함. 특히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고, 저임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지닌 부산의 경우, 성평등 정책 역시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결합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중·고령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해야 함. 부산은 경력 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들이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 이에 중·고령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한 안정적 일자리 발굴을 강화해야 함. 이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장기적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둘째, 고령화 도시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부산은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로 특히 1인 고령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임. 이에 따라 소득 보전과 돌봄 지원을 비롯해 주거·건강·이동 접근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취약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원은 일시적 보호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셋째, '권리와 존엄'의 실현을 위해 참여 기반을 강화해야 함. 공공·민간 영역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각종 위원회와 정책 거버넌스 내 여성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경험과 관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함. 이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넷째, 다양한 배경과 삶의 조건을 고려한 정책 점검이 필요함. 부산시의 정책은 성별뿐 아니라 연령, 장애 여부, 가족 형태, 이주 배경 등 서로 다른 조건을 함께 살펴 설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다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아울러 기업과 시민사회, 지역 공동체 역시 차별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일상 속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책임을 나누어야 함
- 결국 '빵과 장미'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부산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적 과제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은 우리 지역에서 생존권과 존엄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실질적 평등을 향한 공공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날로 기능해야 함

